

시리즈: 인류 2주차

제목: 같지만 다른

본문: 누가복음 7:1-10, 11-16

서론: 예수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4:9

"...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골로새서 1:15 NLT

후기의 NT 저자들은 이 개념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나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자주 말하는 정말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 선생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입니다. 그저 사람에게 불과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훌륭한 도덕 선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란이라고 말하는 남자와 같은 수준의 미치광이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가 될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니면 미친 사람이거나 그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를 바보라고 가두어 놓을 수도 있고, 침을 뱉고 악마처럼 죽일 수도 있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를 주와 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가 위대한 인간 선생이라는 헛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C.S. Lewis

누가복음 7:3-6

3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4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5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6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들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7:6-8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들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누가 복음7:9-10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누가복음 7:11-12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의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누가복음7:13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누가복음7:14-15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누가복음7:16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주셨다" 하였다.